

‘남의 씨로 아들 낳기’ 소재 설화에 나타난 가족관계와 문제해결방식

홍나래*

<차례>

- I. 서론
- II. 설화의 전승유형과 이본비교
- III. 부부의 의사소통방식에 따른 결과의 차이
- IV. 보살핌의 긍정 속에 나타난 욕망과 지배의 방식
- V. 인물의 특성화에 의한 문제해결
- VI. 결론

<국문초록>

‘남의 씨로 아들 낳기’는 가장의 혈통을 순수하게 계승하고자 하는 가부장제의 기본 이념과 어긋나는 소재임에도 ‘씨앗송사’와 ‘다남팔자’의 두 가지 유형으로 활발히 전승되었다. 가장의 뜻에 의한 간통 교사를 다루면서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은 소생자의 향방으로 돌려지고 있는데, 상반된 결과를 도출하는 두 설화이지만 아들의 귀속을 이끄는 데에는 공통된 부부관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씨내리라는 탈법적 가계계승의 행위는 아내에 대해 갖는 남편의 권리가 어느 경계까지 가능한가라는 가부장 주체의 근원적인 문제와 연관시켜 볼 수가 있다. 가부장 사회의 지배 담론과 배치되는 문제 상황에 대해 설화 향유자들의 공감과 해결은 경직된 법과 규범적 틀에 생동감을 불어넣는 결과를 야기하기도 하겠지만, 이에 대한 일반화를 경계하며 이완과 긴장을 유지하고 있다.

* 이화여대 박사과정 수료

주제어 가부장, 주체, 가계계승, 욕망, 간통, 씨내리

1. 서론

본 논문의 연구대상은 자식을 못 낳는 부부에게 다른 남성이 씨를 제공함으로써 자식을 낳는다는 소위 ‘씨내리’¹⁾ 소재 설화이다. 가부장 사회에서 남편은 아내 외의 다른 여성들에게서 자식을 얻기 쉽지만, 그 반대의 경우, 즉 아내가 다른 남성을 통해 자식을 얻는 것은 전자의 경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였다. 한국의 유교적 가족의식은 조상에서부터 후손으로 혈연적 연속성을 중요시 하였고, 지배층에서는 적서의 구별을 엄격히 하여 본처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경우 동성의 친족 내에서 양자를 입후하도록 하였으니, 이는 동일한 조상을 모시는 친족 집단의 강한 혈연적 결속력으로 인해 가능하였다.²⁾ 그래도 자신의 아들을 양자보다 선호하는情理 때문에 비밀리에 서자를嫡母의 아들로 만드는 ‘씨반이’ 풍습이 있었는데, 양자나 씨반이는 모두 부계의 혈통을 계승한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혹은 암암리에 시행된 것이었다.

이처럼 부계의 혈통계승 의식이 강화되고 여성의 수절과 열절을 강요하다시피 한 풍조 속에서 씨내리 소재의 설화가 문헌과 구비에서 활발히 전승되어 온 것은 눈여겨 볼 만한 현상이다. 더욱이 대상 설화들은 모두 남편이 주도적으로 아내의 방에 타인을 집어넣기에 그 고의성이 시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남의 씨로 아들 낳기’의 대표적 설화는 ‘씨앗송사’와 ‘多男八字’³⁾로 유

-
- 1) 씨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남성이 다른 남성으로 하여금 자신의 부인과 동침하게 함으로써 아기를 잉태·출산하는 풍속이다. 이는 불임의 원인이 남편 쪽에 있는 경우에 행해지는 방법으로써, 그 성격상 씨반이와는 반대의 경우에 해당한다. -정재민, 『설화에 나타난 한국인의 행복관』, 『한국인의 삶과 구비문학』, 집문당, 2002, p.103 각주.
 - 2) 금장태, 『유교사상과 한국사회』,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87, p.15 참조.
 - 3) 이 두 유형은 주로 『대계』의 『설화유형분류집』 제 2항 알고 모르기와 제 7항 잘되고 못되기에 속해있으며 제 4항에서도 1편을 찾을 수 있었다. ‘씨앗송사’는 <키운 아버지

형화할 수 있는데, 기존의 연구사에서 본 설화들은 본격적인 관심을 받았다기보다 제사나 혈연, 행복관⁴⁾에 관한 고찰 속의 일부로 언급되었다. 이 인경의 경우⁵⁾ 가계 계승과 혈연 의식이라는 주제로 살폈기 때문에, <친자식의 제사밥을 먹는 아버지 혼령> 삽화나 <남의 초상에 눈물나 친부 찾기>의 삽화와 결합된 일부만이 선택되었다. 혈연의식의 관점에서 살펴본 자료는 부계혈통 중심의 강력한 가부장제에서 그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남성들의 집요한 욕망을 보여준다고 해석되었다. 또한 그러한 욕망이 결국 부조리한 사태를 초래하게 되었고 하였다.

본고는 기존의 연구 성과에 힘입으면서도 ‘남의 씨로 아들 낳기’ 소재의 특수성은 和藪이나 강간, 혹은 의도적인 아기 바꾸기 등의 소재와는 또 다른 문제의식을 내포했으므로 이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고민을 해결한 아이>의 19개 삽화에 1개의 항목을 더했는데, 이는 436-2 친자식의 제사밥 먹는 혼령 중 <남의 씨를 빌어서 얻은 자식>과 모티프의 공유가 많아 함께 묶을 수 있어서이다. ‘다남팔자’가 속해있는 732-1 ‘아들 많이 둘 사람 잘되어 돌아오기’(총 31개)에는 가난한 막내아들(未婚)이 집을 나선 후 수십 명의 여성을 만나서 모두 임신시킨 후 수십 명의 아들을 얻어 그 노동력으로 재력가가 된다는 이야기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본고의 논의방향과 다르므로 주 자료에서는 제외하였다. 『설화유형 분류집』은 전체 설화를 대상으로 삼았기에 본고처럼 세분된 주제나 소재로 설화를 찾을 때에는 그 所在가 몇 가지 유형에 분산되어 속해있을 수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이를 참고하면서도 분석의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명칭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 4) 정재민의 경우 ‘다남은 설화’로 명칭하여 설화의 기저에 정명론적 인식과 다남에 대한 소망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으며, 아들을 많이 낳아 기르면서 부유한 삶을 누리는 것을 설화에서 최고의 행복으로 이야기 된다고 하였다. 정재민(2002), 앞의 글, pp.102-104 참조. 본고는 구비설화에서 ‘팔자’라는 말이 지배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미루어 ‘다남팔자’로 명명하였다.
- 5) 이인경의 경우 ‘가계계승’ 설화로 1) 친자식의 제사밥 먹는 아버지 혼령 ㉞친딸과 바꾸어 온 종의 아들이 지내는 제사 ㉟ 남의 씨로 낳은 아들이 지내는 제사 ㊱ 양자가 지내는 제사(숨겨진 서자 찾아오기) 2) 남의 초상(사당)에 눈물나 親父찾기로 유형을 구분하여 살핀 바 있다. 이인경, 『구비설화에 나타난 가계계승과 혈연의식』, 『고전문학연구』 21, 한국고전문학연구회, 2002.

다. 왜냐하면 대상 설화들은 모두 남편이 주도적으로 아내의 뉘집을 유도하여 부계 혈통의 강력한 질서를 위반하고, 여성들 역시 결국 이를 긍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두 유형은 ‘자식이 없는 남자가 타인에게 아내와 동침하게 하여 아들을 얻는다’에 이어, ‘그 아들의 소속을 밝히다’라는 문제에서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르는데, ‘씨앗송사’는 구비로만 전승되고 ‘다남팔자’는 구비와 문헌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기에 동일소재에 대한 향유층의 시각 차이도 보이는 흥미로운 자료라고 하겠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남의 씨로 아들 낳기’ 소재를 중심으로 먼저 유형을 분류하고, 이본들의 고찰을 통해 변이되는 사항들과 고착된 구조의 의미를 파악한 연후에, 본 설화 속에 담고 있는 가족관계의 지향점과 그 속에 내재된 욕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본고에서 다룬 구비설화는 『한국구비문학대계』(이하 『대계』)에서 추출했는데,⁶⁾ 전승 유형은 크게 ‘씨앗송사’와 ‘다남팔자’로 나누어지지만, 겁탈이나 相姦에 의한 임신이 아닌, 가장이 의도한 ‘남의 씨로 아들 낳기’라는 소재로 8개本을 더 찾을 수 있었다.⁷⁾ 그러나 이들은 하나의 유형으로 전

6) 『한국구비문학대계』, 전 82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과 『한국구비문학대계』 별책부록 『설화유형분류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7) 씨내리 소재가 담긴 기타 설화들은 다음과 같다.

	각편 제목	대계 번호와 지역	제보자(성별/나이)
1	남의 자손 제사	2-4(강원) 726-728	남 71
2	진정한 친구의 우정	3-4(충북) 799-802	남 65
3	제사는 낳은 아버지	5-2(전북) 524-528	여 44
4	제사밥은 자손에게	6-9(전남) 313-315	남 70
5	박문수와 죽은 정승	7-3(경북) 580-584	남 81
6	양자가 지내는 제사에 온 두 아버지 영혼	8-3(경남) 499-502	여 73
7	과객의 아들	8-3(경남) 233-236	여 68
8	천륜은 끊지 못한다	8-10(경남) 671-672	남 71

승되기 보다는 각기 다른 유형들의 일부에서 변이된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짧은 구술 분량으로 인물간의 갈등이 미약하고 ‘제사’ 등을 중심으로 혈연에 대한 믿음을 강조한 설화라는 점에서 앞의 두 유형들을 분석할 때에 비교 대상으로만 고찰하겠다.

II. 설화의 전승유형과 이본비교

1. 씨앗송사

	각편 제목	대계 번호와 지역	제보자(성별/나이)
1	수수씨제관	2-2(강원) 547-551	남 60
2	벼씨송사	2-7(강원) 357-359	여 72
3	이정승이 김정승 씨받다	2-9(강원) 261-267	남 60
4	팔자이야기	3-1(충북) 313-316	남 67
5	양부의 아들인 이유	3-2(충북) 329-333	남 70
6	씨보다는 밭이 입자	3-4(충북) 523-525	남 73
7	기른분이 진짜 부모	4-4(충남) 573-577	여 66
8	부모판별	4-5(충남) 1002-1004	남 78
9	씨를 빌려서 낳은 아들	5-4(전북) 635-639	남 78
10	남의 씨를 빌어서 얻은 자식	6-4(전남) 942-945	남 70
11	씨뿌린 사람 상관없고 땅입자 곡식이요	6-7(전남) 708-710	여 70
12	낳은 정과 기른 정	6-10(전남) 203-204	여 76
13	씨뿌린 사람보다 밭입자가 거두어 들여야지	6-12(전남) 147-149	여 65
14	영리한 아이	7-7(경북) 745-749	남 71
15	놉해서 낳은 아들	7-13(대구) 791-796	남 75
16	길러준 아버지를 구한 효자	7-14(경북) 361-365	남 55
17	씨앗싸움	8-3(경남) 502-507	여 66
18	낳은 부모와 기른 부모의 싸움	8-4(경남) 438-441	남 72
19	낳은 부모와 기른 부모	8-10(경남) 380-384	여 63
20	씨다른 아들도 아들	8-14(경남) 689-691	남 75

‘씨앗송사’의 경우 구비설화에서만 다수 찾을 수 있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유복한 집안의 남자가 자식이 없어 고민하다가, 하루는 가난하지만 아들이 많은 친구(이웃)에게 몰래 아내와 동침하도록 부탁하고 얼마간의 사례를 하였다. 이후 아내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너무나도 훌륭하게 자라나자 친구가 탐을 내서 다시 찾아가려고 했다. 양부가 고민에 빠져 식음을 전폐하고 있자 아들이 사정을 물어 듣고는 재판(잔치)을 열어 ‘이웃 논(밭)에 떨어진 씨앗이 잘 자라면 그 곡식은 누구의 것이냐’라는 비유를 들어 재판관(사람들)으로부터 논(밭)주인의 것이므로 양부의 자식이라는 판결을 받는다.

이 설화는 다른 남성의 씨를 받아 자식을 낳는다는 사건과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양부의 자식이라는 파격적인 답을 제시하고 있다.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일탈된 성행위는 개인들의 사적인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풍교와 사회적 질서를 문란하게 한 죄로써 공동체와 국가에서 묵인하거나 용납할 수 없는 사항이었기 때문이다.⁸⁾ 따라서 본 설화는 규범과는 정 반대되는 입장을 옹호한 설화로 볼 수 있는데, 이본들에서도 화자의 윤리적인 잣대와 문제의식의 차이를 엿볼 수 있다.⁹⁾

8) 『대전후속록』(중종 38년, 1543) 권5 刑典, 禁制 ‘士族婦女恣行淫慾瀆亂風教者 并奸夫 處絞’. 더욱이 어떤 목적이나 사례를 바라고 집안 여성에게 간통을 알선하거나 유도한다면, 이는 가족(부부)의 의리를 상하게 하는 행위로 지탄받고 처벌되었다. 간통 사건으로 얻은 자식을 본夫가 키우지 못하게 했음은 물론이고, 간통 남녀가 부부로 결합하는 것조차 엄금함으로써 사회가 일탈된 성행위에 대한 제재와 불이익을 확고하게 유지했기 때문이다. ○凡縱容妻妾 與人通奸 本夫奸夫奸婦 各杖九十 抑勒妻妾及乞養女 與人通奸者 本夫義父 各杖一白 奸夫杖八十 婦女不坐 並離異歸宗 (『대명률직해』 권 25 刑律 犯奸, 縱容妻妾犯奸 條) ○其和奸 刁奸者 男女同罪 奸生男女 責付奸夫收養 …… (중략) …… 若嫁賣與奸夫者 奸夫本夫 各杖八十 婦人離異歸宗財產入官 (권 25 刑律 犯奸, 犯奸條)

9) 설화 텍스트는 구연하는 실제 화자의 역량과 가치관에 따라 조금씩 변이될 수도 있

a. 친구와의 동침을 아내와 상의하거나 비밀리에 진행한 경우

도입부에서 남편이 친구와의 동침을 아내에게 적극적으로 권한 경우와 반대로 비밀을 유지하려고 노력한 경우가 상반되게 존재한다.¹⁰⁾

<9> ‘아 이거 슬하에 일점혈육이 없으니 이걸 딸 자식 하나도 없고 이렇게 생겼으니 선영(先塋)은 누가 되시게 생기고……’그서 인자 자기 부인하고 상의를 했당만(했더구먼). “별 수 없이 우리는, [탄식조로] 내가를 못났는가 누가를 못났는가 내게 자식이 없으니, 아무 정승을 한 번 초대히가지고 말이지, 사정을 한 번 히보자고…… 어찌냐?”고 헌게, “글쎄요, 나도 참 출가(出嫁)해 와가지고서 여그 와 가지고서 참 이 가문(家門)에 들어와설락컨 죄인 이라고. 나도 죄인인디, 아 죄를 멘(면, 免)히야지야고. 어떻게 멘히야지야고. 선영(先塋)을 봉제사(奉祭祀)허고 뭐냐이던 선영 향원(鄉園)을 받들 사람을 두어야 당연히 옳은 일이야고. 그 대감 처분대로 허쇼. 나는 청을 들을 랍니다.” 인자 그거여. 그러닌게 그런 뒤에는 생각을 맞춘 뒤에는,……(<>는 표에 있는 이본들의 번호임)

아내에게 씨내리를 알리는 이본들은 無子の 해결에 간통을 생각할 여력조차 없다는 인식을 전제로 하여, 부부의 입을 통해 이를 확인한 후 가능한 한 아내도 적극적으로 이 일에 개입하도록 한다.¹¹⁾ 씨내리를 하는 문제

고, 혹은 실제 화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고래로부터 전승되어 온 내용을 전달할 수도 있다. 따라서 텍스트 분석에 있어서 이본 간에 나타나는 구성의 차이는 화자의 것이 라기 보다는 ‘내적 화자’의 것이라 칭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것으로 보이지만, 편의상 ‘화자’로 묶어서 칭하겠다.

10) 아내에게 친구와의 동침을 권한 경우(9, 10, 11, 15, 20)가 다섯이고, 아내 모르게 친구와 동침시키는 경우(3, 7, 8, 12, 16, 17, 18)가 일곱이다. 출산 후 부인들이 바뀌치기를 했다거나(3), 업동이(5)로 들어온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여섯 경우(1, 4, 6, 13, 14, 19)는 이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무언의 합의를 전제한 것으로 보인다.

11) 아내가 임신하기 쉬운 날을 받거나(9), 아내가 직접 남편 친구를 초청해 동침하는 경우(11, 20)도 있다.

에 관해서 적어도 부부 사이에는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반대로 남편이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하면서 아내는 절대 모르게 속이는 경우가 6개본인데,¹²⁾ 이 중에서 친부가 아들을 찾으려 하자 이 사건의 전모를 알게 된 아내가 화를 낸다거나(7) 죽겠다고 소동을 벌인 경우(8)는 두 곳에 불과하며, 이때 <8>의 청중들은 전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¹³⁾ 타인과의 동침이라도 남편의 계획이었으므로 여자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다.

아내가 어떠한 입장이었는지 언급하지 않은 다른 본처럼(6개), 아들을 낳고 살다보니 아내가 자연스럽게 임신 과정을 알게 되었다고 보는 것은 사실상 임신 과정에서 아내의 암묵적인 동조가 뒷받침되었다는 증거이다. ‘비밀동침’이라는 모티프는 아들을 보기 위해 타인을 아내와 동침하게 할 때, 아내의 정절을 훼손하는 데 대한 부담감으로 변이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사실이 밝혀졌을 때, 부부간의 심각한 갈등이 조성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대부분 생략되어 있으며, 무엇보다 어느 아내가 십여 년 부부생활을 해왔는데 조금 전까지도 옆에 있다 나간 남편과 이후 들어온 타인을 끝까지 모른 채 동침하겠는가?¹⁴⁾

부자이고 무자인 남성과 가난하지만 다자인 친구를 대비하여 무자의

12) 함께 자다가 중간에 나온 후 친구를 들어가게 하는 경우(3, 16) 자기 옷을 입히거나 (18) 옷과 함께 음성을 흉내내게 하는 경우(7), 그냥 모르고 당했음만 지적한 경우(8), 불을 끄고 말을 안 하게 하여 아내를 속인 경우(17)이다.

13) <8> 그래 이 마누라는 인저 참 몰루구 당했어어. [청중: 웃음]……그 마누라가 몰르 구서 당해 가지고서는 그렇게 됐다구우, 응? 자기 몸을 허락했다구 막 디리 죽는다구 생 난리가 나네? [청중: 그럭할 필요가 없는디이……?] 그래

14) ‘제사는 낳은 아버지, 정은 기른 아버지’(5-2,p.525)에서도 아내 몰래 친구를 비밀동침 시키는 장면이 나오고 이에 대해 화자는 ‘지금 같으면 아무리 명청해도 자기 남편 손인지 만져보면 다 안다 이 말요. 그런디 옛날 예는 명청한게 모른단 말요. 자기 남편 하는 행실을 하고.’하면서 아내의 결백을 주장하면서도 진실여부에 대한 의심을 은연 중에 드러내고 있다.

고민을 심각하게 토로함으로써 설화 도입부는 부부가 타인의 씨를 받아 자식을 갖는다는 것에 대해 있을 수 있음을 인정받고자 한다.

b. 아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잔치판/ 재판/ 친부 집으로 나아가다

친부가 친자를 찾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자 양부는 식음을 전폐하고 칩거해 버린다. 이에 아들은 모든 사실을 알게 되고,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다며 자신하는데,¹⁵⁾ 실정법에서 아들은 당연히 친부의 소속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기존의 인물이 아닌 새로운 사람, 집 안의 몇몇 가족들이 아닌 사태를 평가하고 판단내려 중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여기에 부합되는 인물은 다른 누구도 아닌 부조리한 출생의 당사자와 재판관으로서의 동네 사람들, 어른들, 官, 王이 필요하게 된다. 官이나 임금의 지엄한 판결에 是非를 가린다는 것은 불경이고 역적이러는 설화자들의 의식이 전제되어 있으며, 일반 백성들에게 마을 어른들이나 동네 사람들은 官의 재판관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잔치나 재판은 판결을 받아 법적으로 인정받겠다는 의미로서 기능한다.¹⁶⁾

그러나 간통이라는 엄연한 범죄행위로 분류될 수 있는 사안을 직접적

15) 부모에게 잔치를 열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1, 2, 5, 15, 16, 19, 20)가 일곱이고, 동네 회의 (13), 재판이나 조정 등 권력기관 (2, 7, 9, 10, 12, 14, 17, 18)에서 확인받는 경우가 여덟 있으며, 친부 집(3, 4, 6, 8)으로 직접 찾아가는 것은 네 군데에서 나온다.

16) 조선 중후기 사대부들의 마을 통제권에 대해서는 이재룡, 『조선, 예의사상에서 법의 통치까지』, 예문서원, 1995, p.224, /이재룡, 「조선왕조 법제도에서의 시간과 공간의 의미(2) — 특히 법적 국가관에 대하여」, 『조선시대의 규범이론과 규범체계』, 한국학술정보, 2006, pp.86-87 참고. 대부분의 경우 여러 사람들 앞에서 판결을 받고 있으나, 친부의 집에서 친부에게 자신이 양부의 자식임을 인정하도록 종용하는 경우도 네 개 본으로 본 사건을 가능한 조용히 해결하고자 하는 서술 의도를 담고 있다고 하겠다. 해당되는 이본은 친구와의 동침을 아내에게 비밀로 한 경우(3, 8)와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4, 6)이다.

으로 부정할 수 없었기에 아들은 비유의 논법을 사용하여 재판관을 압도하게 된다. 재판관이 실정법과 달리 감정적 판단을 하게 된 것은 불리한 상황에서 이를 역전시킨 아들의 논증력 때문이다. 이는 동시에 이 문제가 일반화되는 것이 아닌 특출한 인물, 즉 뛰어난 아들이기에 가능한 예외적 상황이라는 여운을 준 것이기도 하다.

<9번> 상감님 앞으설락컨 허는 소리가, ……“그런디 밭이 이렇게 양쪽(양쪽)으가 있는디 이렇게 있는디, [부채로 방바닥을 가리켜 가며] 이쪽 밭은 콩을 심고 이쪽 밭은 팥을 심었습니다. 판을 심었는디 콩 하나가 이쪽 밭이가 떨어졌어요. 그리서 썩이 강 많이 컸어요. 히가지고 콩이 많이 열었어. 근디 썩이 이거 ‘내야다(나의 것이다). 니야다.’ 썩(싸움)을 허는 디를 봤습니다. 근디 그 썩이 누가 차지허얏 것인교?”

“허어- 그게 모슨 소리여? 아 가꾼 사람이 차지허야지 이 사람이[일동; 웃음] 팔밭 입자가 차지허안다.”

아들은 먼저 자신의 처지를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청취자(텍스트 내외의 향유자들)들에게 내용이 친근하며 시비를 가리는 데에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문제를 제시한다. 농사를 짓는 일은 향유계층들에게 일상적인 일인데, 이때 다른 밭에 떨어진 씨앗이 풍성하게 자랐다는 사건으로 열매의 소유자를 밝혀달라는 것은 친부와 생부를 가르는 문제와 동격으로 보기엔 비약이 심하다. 그러나 잔치의 분위기나 문제 제기자(자식)의 확신에 찬 태도에 의하여 이 두 사건은 ‘씨앗에서 생명이 자라나고 이를 잘 길러야 한다’는 유사함 때문에 동일하게 파악된다. 사실,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논증이라기 보다는 이야기 속 인물들과 청중들이 수궁할 수 있는 논리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c. 친부에 대한 태도

재판관의 판단이 있는 후 아들은 양부의 소생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고, 이후 친부는 아무 말도 못하고 포기하게 된다. 이때 친부에 대해 ‘술도 못 먹고 내뺐다’(1)거나 경제적인 지원을 중단한 경우(2, 20), ‘입도 못 떼게’ 하거나(16), ‘코를 싸매고’ 가며 이후 의리만 끊졌다(19)는 것은 키운 정성을 무시한 채 자기 혈연만을 강조한 친부에 대해 강하게 비난한 것이다. 심지어 남편이 죽어 친부가 자식을 빼앗아갈까 걱정하는 어머니를 ‘자식은 어머니 자식이다’(17)라며 아들은 위로한다. 이처럼 키운 부모가 부모이지 낳은 것은 부모가 아니라는 입장은 여성화자(2, 7, 11, 12, 13, 17, 19)의 경우 더욱 강경하게 언술되고 있다.¹⁷⁾ 이인경에 따르면, 가계계승 설화에서 남성 화자들이 모두 양반가문의 가계계승은 딸을 통해서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시각을 드러내는 데 반해, 여성화자들은 아들·딸이라는 성별보다는 누구의 피를 받았는가 하는 혈통문제가 가계계승에서 더 중요한 요건이라는 인식을 보여준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여성화자들은 여성 자신과 혈연적으로 무관한 양자를 세우기보다는 친딸로 가계를 계승하기를 선호하고, 자신의 핏줄에게 의지함으로써 절대적인 정서적 안정과 신뢰를 얻고자 한다고 보았다.¹⁸⁾

이처럼 여성화자들이 설화에서 보여준 자기 핏줄에 대한 인식은 각별한데, 이는 본 설화에서도 마찬가지이다.¹⁹⁾ 오히려, 여성화자들에게는 ‘낳

17) 여성화자본의 예는 다음과 같다. <13> 그 아들이 와서, “아버지 어머니 걱정 마세요. 나는 오로지 키워 준 어머니를 인정을 하요.” 그래서 그 부모를 모시고 잘 살았드래요. <17> “어무이. 내가 이기고 왔소. 마, 참 분명할세 어무이 내가 어무이 자식이요.”

18) 이인경, 앞의 글, pp.29-30. 2002.

19) 친부와 양부 모두를 포용한 세 경우(3, 8, 15)는 모두 남성화자본이다. 자식을 낳아 기른 것이 자식의 효성과 부양을 바라기 때문이라는 화자의 인식이 강하게 반영된 본들이다.

고 키운 생모와 아무런 사후 책임없이 임신하는 데에만 관여한 친부 중 누구에게 이 아이가 귀속되어야 하는가?’라는 감정적인 부분을 자극하였다. 법이 보장한 현실에서는 당연히 친부에게 모든 권리가 이양되었지만,²⁰⁾ 설화 향유자들의 정서적 반응은 친모의 손을 들어주고, 더하여 친부에 대한 원망과 비난의 서술을 첨가하였다. 결국, 이들이 주장하는 키운 부모란 親母를 포함한 가정을 말하는 것이지 혈연을 배제한 양부모나 친모를 배제한 친부만을 말한 것은 아니다.

2. 多男八字

번호	각편 제목	대계 번호와 지역	제보자(성별/나이)
1	다남치부(多男致富)	1-4 (경기) 1031-1036	남 63
2	두집안이 한 집안으로 된 이야기	2-8 (강원) 167-171	남 70
3	삼년 병어리에 마누라 열 얻고 부자된 며슴	2-8 (강원) 873-880	남 78
4	사람은 사주팔자 속으로 산다	4-2 (충남) 97-109	남 72
5	아들 구 형제 둘 팔자	4-3 (충남) 480-486	남 81
6	달성서씨 시조	5-2 (전북) 362-368	남 79
7	쌍태(雙胎) 세번 더할 팔자	5-4 (전북) 120-125	남 70
8	아들 복 많은 사람	6-2 (전남) 178-187	남 88
9	아들 열 다섯 둔 영감	6-7 (전남) 378-380	남 80
10	아들 팔 형제 둔 서씨	6-12(전남) 236-246	남 71
11	씨장가 들고 부자된 사람	7-2 (경북) 218-225	남 73
12	아들 한 섬 두는 부부	7-3 (경북) 447-456	남 65
13	아들 많은 며슴	7-6 (경북) 613-621	여 84

20) 조선시대의 법률은 친부에게 권리가 있으며, 이는 최근까지도(2005.3.31 개정 이전) 민법상 ‘친권에 복종한다’는 표현이 사용될 정도로 가부장적인 권위가 가족질서에서도 확실하게 유지되고 제도적으로 보호되어 왔었다. 현행법에서는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자, 즉 혼인 외의 자는 父의 인지가 있을 경우 父母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도록’ 하여 비교적 최근에서야 생모의 권리와 부권을 동등하게 논의하게 되었다.

14	아들 십팔 형제	7-7 (경북) 445-460	남 94
15	자식 많은 사람	7-7 (경북) 781-786	남 77
16	자식 복을 타고난 사람	7-10 (경북) 380-384	남 74
17	십 육형제 둔 허집 노인	7-11 (경북) 107-115	남 66
18	칠형제 둘 팔자	7-16 (경북) 48-50	여 82
19	스무 여덟 형제 얻은 명당터	7-16 (경북) 100-107	남 68
20	부인 셋에 열 형제를 낳은 사람	7-17 (경북) 580-582	여 63
21	선산 김씨 팔형제	7-18 (경북) 522-528	남 73
22	벽산 홍씨 시조	8-4 (경남) 704-710	남 56
23	봉 도피한 이야기(1)	8-5 (경남) 137-141	여 68
24	김학선	8-5 (경남) 75-89	여 57
25	미누라 아홉에 아들 열 여섯	8-6 (경남) 946-952	남 61
26	팔자에 아들 많은 사람	8-7 (경남) 623-625	남 73
27	한 서방을 얻은 과부 동서 넷	8-10(경남) 533-541	남 80
28	아들 스물 넷 낳은 김봉태	9-2 (제주) 288-292	남 56
29	老學究借胎生男	청구야담	미상 ²¹⁾
30	交必有孕 孕必生男	청야담수	미상
31	因借胎媾老三家	동야회집	이원명
32	京中窮生有善生男子	동패락송	노명흠

‘多男八字’ 설화는 전국적인 분포를 지닌 설화로 볼 수 있으며²²⁾, 문헌 설화의 경우에는 몇 단락을 제외하곤 거의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다.²³⁾ 구

21) 정명기는 ‘청구야담의 편저와 그 이원적 면모’(1987)라는 논문에서 청구야담이 1843년 당시 金山 군수였던 김경징에 의해 편찬되었다고 추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견해는 현재 학계에서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으며, 김경징은 이본의 필사자로 추정되고 있다. Chen Yuanyuan, 『『청구야담』과 『삼언』의 여성인물 비교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5, p.5 참조.

22) <3>의 경우 병어리 노트를 하여 과부들과 혼인했다는 이야기와 다남팔자의 후반부(살해기도 이후)가 이질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이본으로 본 유형군과 비교하면 서두가 생략되고 다소 무리하게 연결된 면이 없지 않다.

23) 『청구야담』과 『동야회집』은 김기동 편, 『한국문헌설화전집』, 동국대학교 부설 한국

비와 문헌의 줄거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비설화] 가난한 남자가 아내와 동침만 하면 연이어 아들을 얻어 상당한 수의 자식을 보았는데, 팔자에 아들이 더 있다는 말을 듣자 부부는 떨어져 지내기로 의논하여, 남자가 과객길에 오른다. 어느 날 남자가 부잣집에 과객으로 머물다 자신의 사연을 말하자, 이후 부자영감은 다른 과객을 다 물리치고 이 남자를 불러 처첩 여럿을 거느려도 자식이 없는 자기를 위해 ‘아버지’ 소리를 듣게 해달라고 부탁한다. 남자는 망설였으나 워낙 강력하게 부탁하여 하루에 한 부인씩 몸을 보신해 가면서 동침하는데, 마지막 부인이 동침할 때 슬퍼하며 영감이 죽일 거라는 말과 함께 사는 곳과 성명을 묻고, 도망치게 한다. 세월이 흘러 집에 가 보니 가난한 집은 없고 부잣집에 부인이 남편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보내준 돈으로 그동안 잘 살았다고 했으며, 아들들도 이미 장성해 있었다. 어느 날 화려한 가마와 말을 타고 여러 아들과 부인이 찾아와 부자 영감이 죽은 것과 친아비를 찾고자 왔음을 고하고는, 그 마을 일대에 자손을 퍼트려 잘 살게 되었다.

문헌설화] 서울의 가난한 선비가 추노하러 가다가 산 속의 부자집에 유숙을 청하게 되었다. 선비는 주인에게 재물이 많음을 들어 다복하다고 말하자 주인은 자식이 없는 것이 한이라고 했다. 선비는 동침만 하면 아들을 두어 가난한 집에 개돼지 같이 먹을 것을 달라는 아들이 열이나 있는 것은 도리어 고민일 뿐이라고 하자 노인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어린 첩 셋과 동침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였다. 사양하던 선비는 노인의 애원에 승복하여 하룻밤씩 동침하니 첩들은 기뻐하며 선비의 주소와 성명을 물었다. 노인이 기뻐서 선물을 주었으나 선비는 사양하고 길을 떠났다. 세월이 흘러 자식들을 분가시키고 가난하게 사는 선비 집에 화려한 의관의 청년 셋이 찾아와 부자노인이 죽은 것과 친아비를 찾고자 왔음을 고하고는, 산골의 대가로 친

문학연구소, 태학사, 1981.과 『청야담수』와 『동패략송』은 정명기 편, 『한국야담자료집성』, 계명문화사, 1987. 수록본을 참고하였다.

부가족을 모시고 자신들은 옆에서 모친들을 모시고 각각 집을 짓고 살았다. 흩어진 아들들을 모두 부르고, 선비는 처첩을 돌아가며 일생 편안하게 보냈다. 선비는 노인의 제사를 끊이지 않게 하였다.

자식이 없는 남자가 다른 남자에게 부탁하여 아들을 본다는 것은 앞의 ‘씨앗송사’와 같지만, 그 생모들이 씨내리인 남성을 기억하여 本夫 死後 자식들이 생부를 찾게 하고, 모든 가정이 그에게 의탁하여 富를 누리며 산다는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다남의 팔자를 가진 한 남자의 인생역전 이야기 속에 혈연은 반드시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일반적인 생각을 전개하고 있다.²⁴⁾ 전승방식이 구비와 문헌 양쪽으로 존재하므로, 그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a. 가난하고 아들이 많은 남자가 집을 나서다

대부분의 설화에서 남자 주인공은 가난한데다 아들을 줄줄이 낳아 궁핍해서 죽을 지경에 이른다. 아들 수는 2명에서 12명까지 나오는데, 문헌에서는 열 명 정도이며 구비설화는 6개本이 다섯 명 이하이다. 서민들이 식자층보다 가난한 현실에 더욱 절감하여 두세 명의 자식들도 키우기 힘들다는 데에 공감하기 때문일 것이다.

문헌에서 남자 주인공은 서울 사는 가난한 양반으로 나오지만, 구비설화에서는 <21>(글 읽는 남자)을 제외하곤 양민이나 상민, 고공인 등 서민으로 표현되어 있다. 가난한 양반은 먹고 살 수가 없어서 推奴를 떠나지만

24) 이인경(2002)의 경우 ‘남의 초상(사당)에 눈물 나 친부찾기’ 유형으로 7개 본을 분석하면서 5-4 <쌍태 세 번 더할 팔자>와 8-5 <봉 도피한 이야기>를 포함하였고, 이와 유사한 문헌설화인 『청구야담』과 『동야회집』을 비교하여 구비설화와 한문으로 된 문헌설화의 차이를 살폈다. 구비설화는 눈물 때문에 생부의 죽음을 직감한다는 과장된 혈연의식을 부각하고 있으나, 문헌은 어머니가 생부의 거처를 알려 자식들이 그에게 재산을 보태주는 생부의 행운담에 초점을 맞추었음을 살폈다. 본고는 ‘다남팔자’라는 동일 이야기 유형으로 32개의 각편을 함께 비교하겠다.

(30, 31, 32), 일반 백성인 구비설화 주인공은 가난함을 가중시키는 아이를 더 이상 낳기 싫어서 斷産할 때까지 집을 떠나는데(1, 2, 3, 15, 21, 28을 제외한 22개本)²⁵⁾, 특히 팔자에 아들이 더 있다는 점복(18개本)은 이들이 집을 떠나는 결정적인 요소로써 설화세계의 운명론적인 순응을 보여준다.

구비설화는 부부가 함께 있는 것보다 떨어져 있는 것이 서로를 위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는 대개 부부의 합의로 이루어진다.²⁶⁾ 다산이 가난한 가정에 재앙이며 가난은 가족마저 해체시키는 조건임을 보여주고 있다. 부부의 결정은 이후 자기 팔자 속에 있는 나머지 자식들을 다른 곳에서 채워 올 것에 대한 무언의 합의가 된다.

문헌의 경우에는 구비설화처럼 부부간의 적나라한 표현은 삼가고 있지만, 개돼지같이 집안에 가득한 자식들이라거나 키워서 만아들을 제외하곤 모두 처가살이로 보내버리는 모습에서 가난이 가족에 미치는 영향을 간략하게 표현하였다.²⁷⁾ 양반이 비록 몰락했다고는 하나 가족 구성원간에 최소한의 예를 갖춘 집단이라는 자존심이 문헌설화 향유층의 의식 속에 있었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b. 부자의 첩들과 동침한 후 떠나다

가난한 남자는 길을 가다 어떤 부잣집에 유숙을 청하게 된다. 부지는 가난한 남자의 집나온 사연에 감동하여 그에게 자식을 보게 해달라고 부탁

25) 1번은 심부름꾼으로 돈을 벌고자 길을 나서 문헌설화와 상통하는 면이 있고, 2번은 먹여 살릴 힘이 없어서, 15, 28은 가족이 굶어죽는 것을 보기 싫어 나가버림으로써 절망적인 체념의 상황임을 보여준다.

26) 남편의 과객길을 아내가 주도한 경우가 11개이고 (6, 7, 12, 13, 14, 16, 18, 22, 24, 25, 26) 남편이 주도한 경우가 7개 (5, 8, 9, 17, 19, 20, 27)이며 부부가 공동으로 말하는 경우가 3경우 (10, 11, 23)로 모두 21편에서 부부가 단산할 때까지 별거에 들어간다.

27) <29> 家素清貧而子姓滿室還爲憂患矣..(중략) 十年一冠亦難變通 遂分散諸子史之贅居 / <31> 如豚犬之子盈室而家計貧寒無以飼育還爲憂患矣

하게 된다. 구비설화의 부지는 자신의 妻들을 모두 남자와 동침시킨다.²⁸⁾ 여인들의 수는 2명에서 24명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13개本에서 첩이 아홉 명 이상으로 언급되어, 동침 첩이 세 명뿐인 문헌설화와는 다른 양상이다. 앞서 아들의 수를 구비설화가 상대적으로 적게 언급한데 반해 첩의 수를 과장하여 문헌설화와 상반된 양상을 보이는 것은 구비설화의 향유층이 ‘부자가 자식을 보기위한 첩을 얼마나 둘 수 있느냐’에 대해 상당히 후하게 계산하면서, 다남팔자인 남자가 우연한 기회에 수많은 여인들과 동침한다는 성애적인 상상력을 보다 자유롭게 증폭시켰기 때문이라 하겠다.

이는 여성구연본과 남성구연본을 비교해 보면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여성구연자本 5개(13, 18, 20, 23, 24) 중에서 네 개 本은 2-3명의 부인들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10명의 처를 맞는 <24> ‘김학선’은 초반에 부부가 결합하는 부분²⁹⁾과 아들들이 찾아온 이후 상황에 다른 삽화들을 결합시켜, 이야기의 개연성을 중시했다기 보다는 흥미있던 이야기에 대한 기억이 결합된 양상을 보이는 이본이다. <23>의 경우, 다남팔자의 남자가 동침할 때 주인의 옷을 바꿔입어 여인들을 속이고자 했고, 이후 자식들이 찾아갈 때는 이미 喪中으로 되어있어, 남자의 성적 모험담의 여지를 최소화하였다. <13>도 세 번째 부인만이 이후 아들과 친부를 찾게 되고 위의 두 부인과 네 아들은 부자의 집을 지킨다. 여성화자들은 주인공의 축첩 행운을 상대적으로 폄하했다고도 하겠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다른 이본들보다 다수의 첩과 동침한다고 구술한 남성화자들은 ‘아들 집이 대한민국 조상’(<19>은 20妻와 동침)이라거나 ‘격

28) 하충민의 경우는 양반과 달리 처첩의 구분이 그리 명확하지 않다. -국사편찬위원회, 『혼인과 연애의 풍속도』, 두산동아, 2005, p.187. <27>만 과부며느리 넷으로 나오고, 본부인을 제외한 첩의 방에만 보내는 경우가 3개本(1, 7, 22)이고, 나머지 本들에서는 대개 처첩 구분이 명확히 언급되지 않으면서 모든 부인들을 하나로 묶어서 말하고 있다.

29) 구연자 이남이(여 58세)는 여러 이야기들에서 인상적인 삽화들을 결합하였기에 24번 설화의 논리성은 다소 떨어진다.

정없는 사람’으로 나라에서 상도 받은 벽산 홍씨 시조(<22>는 24妻와 동침), ‘멋진 팔자여’(<27>은 12妻와 동침)라는 과장과 감탄을 보내고 있는데, 이는 주인공의 사건을 성적인 모험과 행운에 보다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또한 후사를 대신해주기 위한 성관계에 있어서도 남성이 마다할 이유가 전혀없다는 입장을 피력할 정도로 성에 대한 남성의 우월감과 욕망이 설화 속에 내재되어 있다.³⁰⁾ 결국 성애적인 상상력이 가능한 부분에서 구비 남성 화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구연해 보였다고 하겠다.

문헌설화의 경우 처가 아닌 첩과의 동침을 유도하고 있고, 이를 거절하던 서울 양반이 노옹의 간곡한 부탁을 승낙하는 데에 장문을 할애하고 있다. 지배층은 양자법을 발전시켜 가계계승의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한문으로 쓰인 문헌설화의 향유계층은 성적으로 회화된 笑話가 아닌 이상 일탈적인 사건을 전개하기 위해 진지한 변명이 필요했던 것이다.³¹⁾ 그러므로 노옹의 적막한 처지와 오직 자식을 두기 위한 수단으로써의 첩들임을 강조하여 첩은 천하다는 것(29, 31), 더하여 <30>, <32>에서 노옹의 신분을 아예 상민으로 설정하여 상민의 첩과 양반신분의 차이를 확실히 하였다.

구비에서는 은밀히 남자를 불러 자신의 고민을 토로하여 도움을 구하는 한편, 일이 성사된 후에는 그를 죽여 자식을 오로지 자신의 것으로 돌리려 한다.³²⁾ 남자를 살해하겠다는 부자의 의중은 무자에 대한 연민을 말

30) 다수의 本에서 남자는 부자의 권고에 대체로 마다하며 받아들인다. 1> 그 보행삿지구 가 보행삿 받으려 간 놈이 아니 색씨 데리구 지구 잘먹구 현다는데 그 싫다는 놈이 어딴어? 남자가, <5> 아 집 떠난지 오랜디, 거기다 참 뭇 말로 마누라 생각도 나던 그런 김에, <7> “그러냐”고 그 머 어려운 일 아니거든.

31) 사대부의 첩은 성범죄의 경우 처의 경우에 준한 형벌이 부과되었다.

32) 구비설화에서는 2개本을 제외한 26개本에서 남자에 대한 살해기도가 나타난다. 친부의 존재가 그에게는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여, 심지어 남자가 도망가자 이를 근심하다 부자가 죽게 되는 경우도 3개本이다.(25, 26, 28) <4>는 부자가 해적 두목으로 변이된 이본으로 그는 배를 타고 이야기판에 온 다른 99명을 이미 수장한 잔인한 인물로 그려져 결국 자기가 잡아온 妻들에 살해되는 인물이 된다.

소시켜 사후 아들들이 양부에 대한 예를 행함에도 인색하게 한다.³³⁾ 부자 인물에 대한 성격규명을 정확히 함으로써 청자들의 입장이 누구를 지지할 것인지 결정하게 하여 이후 결론에 대한 논란의 여지 또한 없애게 되는 것이다.

문헌설화에는 살해 기도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들의 대화는 積善을 해달라는 부탁과 이로 인한 부자 영감의 희망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에, 양반이 과연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상황을 설명하였다. 선비는 양반의 자존심을 거스르지 않고 노옹에 대한 연민의 정에 독특한 적선을 했다는 의미로, 많은 선물들을 사양하고 가난한 집으로 돌아와 매우 궁핍하게 살게 된다. 이후 선비는 친자들과 결합한 이후로도 노옹의 제사가 끊이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전의 명분을 지킨다.

c. 壽父(夫)談

구비에서 남자의 본가는 대체로 부자가 되어 있었다.³⁴⁾ 문헌설화에서 장자를 뺀 자식들을 모두 처가살이나 분가를 시키며(29, 31) 노부부가 허

33) 구비설화의 경우 양부의 사후에 그에 대한 예를 차리는 경우가 셋 뿐이다. 친부를 찾은 즉시 상복을 벗으려는 아들을 만류해 3년상을 치르게 하는 경우(3), 양부의 호적에 올려주는 경우(24), 본인들이 아니라 양부의 제사지내는 일 불 사람에게 눈을 주는 경우(26)가 그것이다.

34) 바깥에서 얻은 자식들과 상봉하기 이전에 경제적 상태가 달라진 경우가 18개본으로 치부하게 된 원인으로는 부자의 처가 재물을 보내주거나(11, 12, 13, 14, 20), 부자가 재물을 보낸 것(1, 4, 5, 10, 16)처럼 부자의 집에서 재물이 흘러나와 부유하게 된 경우 10개본과 자식들이 점점 자라 가족들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먹고 살만하게 된 경우(2, 3, 17, 28) 4개본이 있다. 기타 이유로 치부한 경우는 다른 행운담 소재와 착종된 것이다. <18>, <19>는 피살위기에서 간신히 모면한 남자가 본가로 돌아오자 아내가 ‘고새 들어오냐며 구박하여 그 사이 경제상황이 반전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부자가 되지 않은 10개본 중, 가난하여 신을 삼고 아들들은 머슴살이를 보내는 등 가난한 상황을 보여주는 <9>번과 살림이 늘지 않는다는 <23>번 외 다른 구비설화에서는 가정경제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어(6, 7, 22, 25, 26, 27) 가난으로 인한 죽음의 위기감에서 집을 나설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이다.

몰어진 집에서 늙고 쇠약해진 모습을 서술한 것과는 비교해 볼 만하다. 문헌에서는 적선이었다는 자존심을 지키고자 했고, 구비설화는 다남팔자의 남자가 겪는 모험을 중심으로 기술되었기에, 계속된 가난보다는 모험 이후 귀환과 안착이 되는 상황과 이후 더한 행운의 도래를 기다리는 즐거움을 향유층이 선호했다고 볼 수 있겠다.

부자의 죽음은 아들들로 하여금 친부를 찾게 하는데, 핏줄을 유독 강조한 본들은 구비설화로, 혈연의 끝림은 양부의 초상에 눈물이 나지 않는다거나(7, 12), 친부의 초상날 밥을 먹다 갑자기 눈물이 났다(23), 친부가 문상 와서 곡을 하니 함께 울었다(14)고 하여 초상과 눈물을 연결시키거나, 거지잔치를 연 부잣집에 친부가 다시 찾아가니 그의 밥상에 아이들이 앉아 암전히 먹은 것(18)으로 일상에서도 ‘부자지간에 끌릴 수밖에 없다’는 사례를 들었다. 결국 부인들이 아들들에게 친부를 찾게 하는 경우가 17개,父子가 서로 이끌려 찾고자 한 경우가 11개이다. 본처가 알고 아들들을 찾게 보내는 경우가 2개本으로 특이한데, 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남자의 과객행이 부부간의 합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Ⅲ. 부부의 의사소통방식에 따른 결과의 차이³⁵⁾

타인의 자식을 갖게 된 상황은 일반적인 간통(화간)이나 강간에서도 발

35) 의사소통이란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서 사실, 생각, 의견 또는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일련의 행동으로, 인간이 생존하고, 원만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며 이를 통해 사회가 성립하는데 중추적인 매개 역할을 한다. 부부의 의사소통은 부부가 자기 자신이 정서적으로 몰입하고 있는 내적인 문제나 상호관계에 의한 문제의 내용을 상호 탐색할 때 행하는 언어의 사용 및 관리 방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가족의 기능을 강조하는 현대사회에서 주목되면서, 이의 특성화시키고 유형화하는 작업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유점숙, 「부부의사소통 특성과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4, pp.6-14.

생활 수 있는 상황이지만, 본고는 남편의 적극적인 권고로 이루어진 씨내리 간통행위에 관한 설화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간통이 여성의 소유자인 가부장에 대한 모욕이고, 혈통적 계승을 훼손시킬 수 있는 여성의 범죄라는 기존 인식과는 정반대의 문제제기이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다. ‘씨앗송사’와 ‘다남팔자’는 같은 문제에 다른 해결을 도출함으로써 설화 세계의 다양한 가치관을 보여주는 듯하지만, 사실 각각의 결론에 이르기까지 등장인물들 간의 관계, 특히 부부관계가 결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부와 이들의 관계는 어느 경우에서나 크게 다르지 않다. 양부는 때로 비인간적으로 그러지기도 하지만, 자식들을 하나같이 훌륭히 성장시킴으로써 양부자 사이의 갈등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양부의 성격이나 양부자의 관계가 친부를 찾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친부와 결합하는 데에는 친부에 대한 사실을 확인해주거나 찾도록 선동하는 부인들(어머니)의 영향이 지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씨앗송사’의 부부는 無子の 고민을 함께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남편은 첩을 들일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에게 원인이 있음을 순순히 인정하고 있는 처지이다. 기자정성을 드리는 아내가 불쌍하다고 할 만큼(7) 자식은 나의 문제이면서 또한 아내의 문제임을 표현하기도 한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아내의 동참과 지지를 요청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내를 위해 철저히 속이기도 하면서 다른 사람과 아내를 동침시킨다. 따라서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거나, 심지어 양부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도(17) 아내는 수심에 찬 채 가정을 지키게 됨으로써 친부가 아닌 양부가 자식의 아버지로 인정받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반면, ‘다남팔자’의 부인들은 오직 자식을 낳기 위한 수단이었다. 無子인 부자는 자식을 낳기 위해 수심 첩을 두었고, 나이가 들어도 자식에 대

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젊은 첩을 들이고 있었다. 가장이 본인에게 무자의 원인이 있음을 짐작하면서도 어린 첩들을 계속 들이는 상황에서, 부인들이 느끼는 가정내 자신의 존재감이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씨내리 남성을 아내들 방에 넣는 데에 있어서도 남자와 부자영감 사이의 권유와 사양하는 갈등이 언급될 뿐, 정작 중요한 부자영감과 아내들과의 의견조율이나 갈등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영감과 아내들(사실 첩)과의 관계는 부부관계라기 보다는 자식보기와 부양책임을 계약한 주종관계와 같은 처지이다.

첩은 賤하기 때문에 타인과 동침해도 괜찮다는 가장의 인식(문헌설화) 또한 첩들이 부자를 중심으로 한 가정보다는 새로운 남편을 받아들여야겠다는 데로 나아가게 한다. 문헌에서는 세 첩 모두가 남자의 주소와 성명을 묻고, 구비에서는 대부분 끝 처가 주소성명을 묻고 재물을 주면서 남편의 살해시도로부터 적극적으로 그를 도피시킨다. 그녀들은 위기를 알리며 때로 눈물을 흘리는데, 이는 여인들의 마음이 자식을 낳게 해 줄 남자에게 향해졌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여인들이 본남편에 대한 마음은 그의 상을 당해 자식들이 머리를 풀려고 하자 그럴 필요 없다고까지 말하는 모습으로(24, 30, 31, 32) 심지어 남편을 살해하고 탈출하는 모습(4)으로까지 변이될 수 있었다. 가장이 처첩에게 간통을 교사한 행위는 부부간의 의리를 이미 버린 것임을 기존의 법에서도 명확히 했으므로, 여인들이 본 남편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향유자들의 현실감각이 반영되어 있다. 결국 자식에 집착한 부자영감과 처첩들의 삶은 같은 공간에서 가족으로 살면서도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게 된 것이다.

위의 설화들에서 문제의 부부 외에도 다른 부부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다남팔자’에서 가난으로 별거와 결합을 겪은 친부의 가정과 ‘씨앗송사’의 드러나지 않은 친부 부부가 그것이다.

가난하여 별거한 부부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난과 다산이라는 중첩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였고, 죽을 위기를 각자 극복하고 재회하니 가족의 신뢰와 유대가 더욱 공고해졌다. 남편이 외지에 나가 10년 후에 돌아왔을 때, 혈육인 아들들이 아버지를 몰라보더라도 아내가 확인하여 맞아들이는 장면이나,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자식들을 다시 찾아보게 하거나, 혹 자식들이 확인하러오자 아내가 서둘러 반기는 등 부부사이의 갈등은 이후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재력있는 첩들과 함께 사는 것이 남편과 함께 본처도 노후의 안정을 찾은 것으로 해석되기에 이른다.³⁶⁾

이와 반대로 ‘씨앗송사’에서 친부 부부의 관계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자기 자식들에 비해 훨씬 뛰어나게 성장한 또 다른 아들을 찾고자 노력하는 인물은 친부뿐이고, 아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부의 집을 찾아가는 경우에도 친부의 妻는 언급되지 않는다. 이야기에 전혀 등장하지 않으므로 남편의 혼외자식을 찾으려는 시도에 결코 개입하지 않는 인물임을 알 수 있는데, 친부의 아내로서는 비록 가산이 넉넉하지는 않더라도 부부사이의 아들이 여럿 존재하는데다, 단지 좀 더 성공하고 총명하다는 이유로 전혀 몰랐던 남편의 아들을 데리고 온다는 것에 공감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자식이 없던 부자집 여인이 남편 사후 남편의 혈육을 찾아 조키였

36) 문헌에서도 소년들이 찾아오자 생부의 본처가 바빠 맞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준다. <32>嫡母 忙邀入來 滿室歡喜 : <12번> 그 인자 늦복이 터질라 카이, 그 참 한테 마 있고 갈 리가 살다가 그래 한테 사며 자식이 서이 더 나야 된다고 ‘우리가 여-한테 있어기는 안 된다고 죽든지 사든지 나는 아-들 델고(데리고) 내가 살 챔이이 그래 발주인은 거처 없이 떠나가주고. 언제라도 살아 만내고. 어테가가 죽든지 사든지 떠나라꼬’ 참 이래 살린 사람들이 그만침 잘 되더란다.; <12번> 설화의 말미에 화자와 청중들은 초년 고생과 이후 자손들이 잘 되어 늦복이 터진 경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느 경우에도 여러 첩들이 생긴 본처의 갈등을 언급하지 않는다.

던 양자를 내보내고 남편의 친자를 후사로 삼았다는 이야기와 비교해 볼 수 있다. 설화 세계에서는 현실과는 달리 대부분 양자를 피양하고 서자로 본자식을 삼아 후사를 잇게 한다.³⁷⁾ 법이나 명분보다 반쪽 혈육을 내 자식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된 것은 남편의 혈육을 데려오겠다는 아내의 의지와 ‘친자식의 제사밥이어야 먹을 수 있다’는 향유자들의 믿음이 결합되었기 때문이다. <자식찾은 전처>³⁸⁾에 의하면 아들의 모친조차 영감이 죽어 생부를 찾아주기 막막해져 돌아섰는데, 본부인은 母子를 찾아 데리고 와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죽은 영감을 닮았는지 확인시킨다. 그녀가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꿈이라는 영적 증거일 뿐이지만, 母子를 깨끗하게 보이려고 미리 씻기고 새 옷을 지어 입혀 잔치를 베풀며, 음식을 대접받던 다수의 입으로 영감을 닮았다고 인정받게 하는 과정이 무척 용의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嫡母의 치밀한 준비와 情에 호소한 설득 때문에, 법적 우위를 가진 양자는 항변할 틈도 없이 재산을 반분 받고 물러나야 했다. 물론 부부사이에 자식이 없었던 배경이 다르지만, 본처가 나서서 남편의 혼외자식을 데려오는 것이 법으로써 뿐만 아니라 일반 정서상으로도 자식의 귀속 문제를 얼마나 쉽게 해결할 수 있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본 설화에서는 부부가 서로의 문제를 드러내고 상호 존중한 관계(‘씨앗

37) 이인경의 경우, ‘양자가 지내는 제사(숨겨진 서자 찾아오기)’ 유형으로 10편을 찾아 분석하였는데, 양자가 지내는 제사는 양자의 생부가 받고 정작 영감은 자기가 생전 외도로 낳은 서자에게 가서 제사밥을 먹기에 부인이 서자를 데려와 대를 잇는다는 내용으로, 여성화자들이 활발히 전승한 특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외도를 한 남편에 대한 섭섭함이 나타나지 않고, 서자에 대해 양자보다 남편의 혈육이라는 점에서 자신과 감정적으로 가깝게 여기고 있는데, 혼령의 음조라던가 쪽 빼어닮은 모습 등을 강조함으로써 혈연을 중시한 사고를 보여주어 명분론에 입각한 立後의 방식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인경(2002), 앞의 글, pp.17-20.

38) 『대계』 8-14, pp.500-505.

송사'의 양부가정과 '다남팔자'의 친부가정)와 일방적인 권위가 지배하는 관계('씨앗송사'의 친부가정과 '다남팔자'의 양부가정)에서 문제 해결 의사와 이에 따른 결과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돈과 지식 등 삶에서는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부부간의 신뢰와 기본적인 의리를 지키는 것이 자신 뿐만 아니라 가정이 원하고 이룩한 바를 지킬 수 있다는 설화 향유자들의 가족관을 읽을 수 있다.

IV. 보살핌의 긍정 속에 나타난 욕망과 지배의 방식

'씨앗송사'의 경우 집안의 대가 끊겨 제사를 지낼 수 없다는 걱정을 부부가 나누며 씨내리를 청하는 이본도 있으나, 사실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서라면, 부계 쪽으로 양자를 들여 입후하는 방식이 있음에도 부부는 양자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고, 쉽게 다른 남자의 씨를 받는다. 만일 재산이 양자의 본가로 유출될 것을 우려했다면, 인척이 아니라도 3세 이전의 고아를 데려와 자식으로 삼거나³⁹⁾, 씨받이와 유사하게 비밀리에 갓난아기를 구해도 될 텐데 굳이 한 쪽의 혈연이라도 유지하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⁴⁰⁾

39) 『수교집록』에 의하면 병자호란이 일어난 다음 해에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 기른 경우 영구히 자기 자식으로 삼게한다는 법령이 시행되었다. 환란과 기근의 폐해가 극심했던 조선 후기에는 버려진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을 보장하여 이를 私賤으로도 소유할 수 있음을 명기하여 救恤하고자 했다. (『수교집록』 권3 禮典 ; 大駕還到之初 京城遺棄兒 顛仆道路 收養者永爲己子 勿令所生父母及本主 推尋事 曉諭矣)

40) 이인경(2002), 이순구(1996)에 의해 양자를 들이는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 여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가에 대해 구비설화와 문서들을 자료로 지적인 바 있다. 이인경의 경우 남편 사후의 양자나 그 본가의 영향력을 염려하고 있음을, 이순구의 경우 대부분 총부들이 자신의 입지를 위해 바로 아래 시동생의 아들보다는 10촌 이상의 먼 친척 자손에서 양자 들이는 것을 선호했다고 하였다. 이순구, 「조선중기 총부권과 입

혼인한 부부가 자식을 염원하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욕망일 것이다. 그와 같은 욕망은 시대에 따라서 대를 잇는 것과 연결되어 더욱 강하게 부각될 수도 있겠고, 적자가 없는 경우 노후·재산의 귀속·제사의 문제가 입후의 조건으로 복잡하게 고려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본고의 설화들은 이러한 문제가 표면상 심각하게 부각되지 않는다. ‘씨앗송사’는 제사의 문제까지 연결되지 않고, 양육의 기쁨을 느끼던 양부가 송사를 통해 자식과의 정서적 교감과 상호보호를 확인하면서 서사가 종결되고, ‘다남팔자’는 부자의 재산과 가족이 결국 씨내리 남성에게 귀속되므로 양부가 얻은 것은 자식이 준 현재적 만족감이 가장 크다.

구비세계에서는 강화된 혈연 의식이 ‘친자식의 제사만을 음복할 수 있다’거나 ‘피는 못 속인다’는 믿음으로 전승되었는데, 이로 볼 때 ‘씨앗송사’의 부부가 씨내리로 대를 잇겠다는 설화적 명분은 공허해질 수 있다. 오히려 이들 부부는 함께 잉태와 출산의 과정을 지켜보고, 자식이 자기를 아버지라고 믿으며, 어머니는 親母로서 자식에 대한 세밀한 양육의 과정에서 정성을 다하는, 진정한 가족애를 염원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들 설화에서 제사를 받는 부분이 거의 언급되지 않는 것도 그 때문으로 보인다. ‘다남팔자’의 양부가 비록 다른 사람의 자식이라도 집안에서 자식이 태어나 아버지라 부르는 소리를 듣고 싶다고 애절하게 소망한 바가 보다 직접적인 심정이었던 것이다.⁴¹⁾

養父子가 보살핌과 의리를 중시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몸에 대해 ‘밭으로서의 여성’이라는 인식에서 기인하였다. ‘씨앗송사’에서 직접적으로

후의 강화, 『고문서연구』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41) 친부가 자식을 찾겠다고 소동을 벌이자 양부는 자신의 체면이 손상된 것뿐만 아니라 일생동안 힘써 기른 자식을 빼앗길까봐 삶의 의지를 잃어버리는데, 이본에 따라서는 이유를 묻던 자식이 먼저 죽겠다고 위협하자 출생의 비밀을 알려주기도 하여, 아들에 대해 친자와 같은 애정을 느낌을 강조하였다.

밭에서 난 곡식이 누구의 것인가?라는 비유로 표현되었듯이 여성의 몸은 남성으로부터 씨앗을 받아 기르는 수동적이고 가축적인 이미지로 나타난다. 설화는 여성이 가정에서 진정으로 의미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해야 되는지에 대해 심층적인 문제를 던지고 있으며, 도출된 결론은 여성의 몸은 생산을 위한 몸이어야 하고, 그 생산은 가장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다남팔자’에서 부자 영감이 살아있는 동안 자식과 여자들이 친부를 찾아갈 수 없었던 것 역시 여성의 몸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처럼 가족에 대한 가부장의 소유 의식과 권력적인 親權 의식은 씨내리를 통한 가계계승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⁴²⁾

유학적 여성관이 지배하게 된 조선 후기에 이르면 여성의 존재근거는 혼인에 의해서 비롯된다고도 할 만큼 결혼생활을 배제한 여성의 삶은 논의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혼인에 의해서 자녀를 생산하고, 아이를 양육하면서 집안 살림을 맡아 女工에 힘쓰고 治産까지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바람직한 여성상으로 인식하게 되었는데,⁴³⁾ 출산은 무엇보다도 시집살이로 이동하게 된 혼인양태에서 여성의 위치를 시집 내에 공고하게 다져주고, 가계를 잇는다는 명분뿐만 아니라 노후의 여생을 의탁할 방편이 되었다. 곧 가정 내 여성의 존재의미는 아이를 생산하고 집안 살림(경제활동)을 하는 데에까지 이르는데, 이는 상층부터 하층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모두 아내에게 요구되는 덕목이었고,⁴⁴⁾ 훌륭한 여성이란 자신을 돌보지

42) 우리나라의 친권은 ‘子是 가산 내지 부모의 것’이라는 강력한 권력적 요소가 더해져있다. 구연창, 「친권 제도의 재조명」, 『가족법연구』 제4호, 한국가족법학회, 1990, p.153 필자는 가족의 소유주로서의 가장의 입지와 자식과 아내에 대한 강력한 지배력, 제 아이를 갖고자 하는 여성의 욕망 등이 결합되어, 가계계승의 압박 아래 양자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씨내리(혹 씨내리 설화)가 가능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43) 김연순, 「조선시대 여훈서에 나타난 여성의 정체성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5. 참조

않고 가족을 위해 희생적으로 헌신하는 모습으로 이상화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의 생산과 노동은 긍정적으로는 여성 자신을 위한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차적으로는 가장인 남성의 권리임이 명백하였다.

따라서 남성이 자신의 권리를 누리지 못할 경우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을가에 대한 설화적인 해결책이 위의 유형들에서 제시된 것이다. 여성의 정조를 중요시한 사회적 시선이 담긴 설화들에서 여성이 자신의 성적인 정조를 특정한 목적과 교환했을 때 몸을 사용한 주체를 누구로 보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⁴⁵⁾

희생열, 열불열 설화의 여주인공들은 남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나 원수를 갚기 위해 일련의 행위들을 수행하게 되고(再嫁, 살인, 낙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 뒤에는 대부분 죽음으로써 이념적인 열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살아남은 열녀도 열녀인가 아닌가에 대한 향유자들의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녀들은 자신의 몸을 (비록 이념적 틀 속이라고 비난할 지라도) 주체적으로 실천의 장에 내던진 인물들인데, 그녀들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행위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 중에 드러난 몸(정절)으로써의 인식이 지워지지 않고 있다. 썩이념이 강화되면서 본인이 의도

44) 송시열, 이민상 외, 『빈 방에 달빛 들면: 조선 선비, 아내 잃고 애통한 심사를 적다』, 유미림 외 공역, 학교재, 2005.를 참고하면 비록 제문의 형식으로 쓰이긴 했으나, 대개 아내가 어려운 집에 시집와서 살림을 잘하여 가족의 의식주를 부족함 없이 해 주었던 일을 기록하며 감사와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살림을 잘 운영하여 남편으로 하여금 집안 경제의 걱정 없이 바깥일에 매진하도록 하는 것이 상층 여인의 덕목이었음을 알 수 있다.

45) 수전 보르도는 ‘어머니도 인격적 주체인가?’에 대해 검토하는 첫 단계로 법과 의학이 개인의 권리에 관한 하나의 통합된 일관성있는 전통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전통이 확립되어 왔으며, 이는 육체화된 주체를 위한 전통과 육체로만 취급된 사람들을 위한 전통이라 하였다. -수전 보르도, 『참을 수 없는 몸의 가벼움』, 박오복(역), 또 하나의 문화, 2003, p.96. 이는 여성의 몸을 취급한 설화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바이다.

하지 않았던 간통과 임신사건의 억울함을 표현하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여성이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은 수없이 생산되었고, 웃음을 유발시키는 조크가 아닌 다음 설화에서 여성은 성적인 순결 논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반면, 남편의 주도 아래 시행된 씨내리 행위는 여성의 몸에 대한 평가가 지속되지 않는다. 그녀들은 훼손 시비에서 벗어나 있으며 생명에도 지장이 없다. 이는 그녀들의 육체가 남성 주체의 의지에 순종하였기 때문이고, 간통을 함으로써 보장된 가정의 평화는 법적 규제⁴⁶⁾ 속에 간과될 수 있었던 남성의 권리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⁴⁷⁾ 즉, ‘남의 씨로 아들 낳기’ 소재는 몸의 진정한 주체가 되지 못한 여성과 자신뿐만 아니라 ‘타자’인 여성 몸의 주인임을 주장하는 남성에게 서로 다른 문화적 전통이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간통을 여성 몸의 존재의미와 교환하며 가장의 인정으로 불문에 부칠 때, 자식은 양부와의 유대감 속에서 자아를 발달시키고, 사회적인 신분(재산)을 획득하게 됨으로써 양부에 대한 책임감과 밀착을 유지하게 된다. 여성의 비도덕적인 과거가 현실적인 보상으로 해결된 것이다.⁴⁸⁾

46) 매춘행위 강요금지와 같이 가정내 여성을 보호하는 조항들

47) 대계 4-5 <남의 집 대 이어준 박문수>(pp.819-823)는 청상과부가 과객(박문수)을 유혹하여 동침한 후 죽은 남편의 유복자를 낳은 것처럼 행동한 것이다. 여성이 자발적으로 씨내리를 선택한 경우로, 결국 과부는 자결함으로써 비밀을 유지한다. 남자 집안과 여인 모두에게 비도덕적이고 이득도 되지 않는 상황으로, 『대계』에서 이분이 다양하게 채록되지 않은 점 역시 향유층의 공감을 폭넓게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 하겠으나, 성적 정절에 대한 선택을 누가 하였느냐에 따라 달라진 결말은 본고의 논의에 포함되고 있다.

48) ‘터잡다 친부 확인’은 대계에서 8개본이 있는데, 그 중 4개본은, 간통으로 얻은 막내가 좋은 집터를 잡을 수 있어 성공하는 것으로 本夫가 아내의 간통 사실을 확인하지만, 그 아들의 福있음으로 인해 모든 것은 용서된다. 이들 6개본은 모두 간통으로 얻은 아들이 훌륭하게 성공한 것으로, 모친의 간통은 집터(묘터)와 아들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탄복하는 기능으로 작용할 뿐 간통자체가 是非로 부각되지 않는다. 서민층에서는 자식낳기 뿐만 아니라 경제력도 때에 따라 아내의 정절과 교환할 가치가 있는

여러 이본에서 남편이 비밀리에 다른 남자를 안방으로 들이밀면서 불을 켜지 말 것을 요구한다. 불을 켜지 않음으로써 아내를 속여 이 모든 일을 남편이 주관하여 아내는 몰랐다는 것을 애써 강조하기도 한다. 캄캄한 방에 불을 켜지 말라는 것은 아내로 하여금 눈을 뜨지 말라는 것과 같은 말이다. 눈을 가림으로써 사실에 대해 판단하지 말 것을 종용한 것인데, 아내로서 이처럼 급박하게 타인과의 동침을 요구받는 상황은 성적 착취와 억압으로도 해석될 수 있으나, 설화 속 인물들은 모두 순순히 받아들인다. 『대계』의 여성화자 비율과 문헌에서의 전승유무를 고려할 때, ‘씨앗송사’는 여성 화자가 ‘다남팔자’는 남성 화자가 선호한 설화라고 하겠다.⁴⁹⁾ 여성들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상황과 제 자식을 낳게 된 기회에 동정과 공감할 수 있었고, 남성들은 강한 생식력을 가진 주인공의 행운을 여유롭게 관조할 수 있었을 것이다. 행운의 남성들은 의리가 아님을 들어 주저하는 듯하면서도, 여자·아들·재물에 대해 득의에 찬 모습을 드러내지만, ‘씨앗송사’의 그녀들은 남편의 주관이라는 믿음과 권력의 힘에 의지하며 어머니가 되겠다는 욕망을 드러내지 않는다. 여성은 임신과 출산의 주체로 전경화되지 않음으로써 자식과 가정의 평화를 얻고 있다. 이 두 설화는 가장인 남성의 권리라는 심리적 경계를 내에서 남성의 성애적 상상력은 ‘팔자’라는 이름으로 문면에 드러나고 여성의 출산에의 욕망은 후경에 묻히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욕망의 표현 방식은 남성지배의 체제에서 기인한 것이라 하겠다.

것으로 부상되었다고 하겠다.

49) 김대숙, 「한국구비문학대계 여성제보자 구연설화에 관한 통계적 연구」, 『한국고전연구』 9, 한국고전연구학회, 2003, p.229를 참고하면, 『대계』의 여성화자 비율은 24.4%이며 여성화자의 이야기 편수는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씨앗송사’는 20개본 중 7개본이 여성화자이며, ‘다남팔자’는 구비설화 28개본 중 5개본이 여성화자이다. ‘다남팔자’만 문헌으로 전승된 점과 유형화되지 않은 8개의 씨내리 소재 설화 중 3개본이 여성화자인 것으로 볼 때, 성별에 따른 선호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V. 인물의 특성화에 의한 문제해결

비교적 최근까지도 자식은 아버지의 소속으로 혈연적 권리에서 어머니보다 유리하였고 친생자의 판결에서도 養父보다 우선됨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았었다. ‘피는 못 속인다’는 신념은 단순히 유전적인 닮음뿐만 아니라, 친자식의 제사밥을 얻어먹는 혼령, 다른 姓氏가 쓸 수 없는 집터, 친부모의 상이 아니면 눈물이 나지 않는다는 설화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동기화이다. 따라서 자식을 갖고 싶어 타인을 내실로 들이는 행위나, 신화의 주인공부터 자기를 버린 친부를 찾아 나서는데, 자식을 찾고자 하는 친부의 情理를 외면한다는 것은 심각한 윤리적 파탄을 자행하는 것으로 비취질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설화들은 설화적 논리에서 결론에 대한 타당성을 갖기 위해 인물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고와 소재가 유사한 다른 설화들⁵⁰⁾이 인물 창조에 유의하기 보다는 이념적인 노선에 충실하게 부합되며 결과적으로 사실 확인 차원에 머물렀다면, 본고에서 살핀 ‘씨앗송사’와 ‘다자다부’는 인물의 특성을 부각시켜 그들 간의 갈등과 운명, 능력을 표현하고 있다.

먼저 불합리한 상황을 설정하기 위해 배경이 되는 인물들의 조건이 설화 내에서 상반되게 비교되고 ‘남의 씨로 아들을 낳았으니 누구 것이냐?’거나 ‘다남의 팔자를 타고 났다’는 문제성을 인물들 간의 대화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대조뿐만 아니라 생식력, 가족 간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상반된 두 사람/가정의 상황을 드러냄으로써 생명과 재물이 교환될 수 있는 상황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고 있다.⁵¹⁾ 이처

50) 씨내리 소재가 있던 8개본

51) 강진옥(1986)은 <금척>의 구비전승을 살피면서 ‘생명과 부귀의 상호증여를 통해서 등장인물 모두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로서 삶에서의 실질적인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강진옥, 『구전설화 유형군의 존재양상과 의미층위』, 이화여대

럼 상반된 조건의 대비는 삶에서 추구하는 가치의 상대성에 대해 생각하게 하고 타인의 것에 대한 욕망과 그로인한 윤리적 문제 제기를 가능하게 하는 출발점으로 기능한다. 또한 핵심 사건에 대한 반복적 언술은 대상 인물과 공간의 변화에 따라 의미의 변형을 일으키면서 문제에 대한 청자들의 환기를 지속시키는 한편, 정황의 변화를 통해 화자의 의도대로 청중의 반응을 유도하고 있다.⁵²⁾

특히 문제 있는 현실을 타개할 인물로서 아들이나 막내 첩은 사실, 직접적인 해결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인물들에게 사건을 알리고 사건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유도해가는 인물이다⁵³⁾. 이들의 속성은 스스로 부조리한 인물이라던가, 방외인적 기질의 인물, 아직 인정받지 못한 경계적 인물이다. 이들이 사건을 알리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기존 사회의 인정을 받아 흡수되는 현실은 문제해결의 의미에서 다시 한 번 음미해봐야 할 대목이다.

‘씨앗송사’의 아들은 자신의 출생에 관한 부끄럽고 위법적인 사실을 접함에도 전혀 놀라지 않아서 우리의 긴장을 증폭시키며, 위기 속에서 자신

박사학위논문, 1986, p.iii. 이는 구비설화의 세계관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다고도 하겠다.

52) “무자인 남자가 친구에게 부탁하여 자기 아내와 동침하게 한 후 아들을 얻다”는 발화는 부부사이, 친구사이, 양부자 사이에, 재판관과 아들사이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된다. 인물들의 상황과 능력에 따른 발화 방식과 정황의 차이는 사건전개의 동력이면서 원하는 결론을 이끌어내게 된다.

53) 이야기 속에서 이들의 등장 모습은 서로 다르지만, 그 기능상으로는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프롭의 개념에 따르면 동일한 ‘기능소’(functor)로 묶이는 것이다. 프롭은 러시아 민담을 향유한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기대하고 있는 코드를 발견하여 이를 설명함으로써, 민담이란 장르가 청중들에게 살아남은 것은 이러한 기능소들의 상호교환 가능성이라고 보았다. 청중은 오래된 것(기능 그 자체)에 대한 위안과 새로운 것에 대한 상상적인 기쁨 모두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채트먼, 『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 김경수 역, 민음사, 1995, pp.107-108

의 능력을 과감하게 펼쳐 보임으로써 모든 사태를 종결시키고, 본인 역시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인물임을 확인받게 된다.⁵⁴⁾

‘다남팔자’의 경우 구비설화는 막내 첩의 지혜와 판단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진행시킨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남편의 살해 계획을 알고도 현명하게 남자를 도주시키고, 남자의 본가에 재물을 보내기도 하고, 남편 출상 후엔 윗 부인들을 설득해서 모두를 데리고 친부를 찾게 한다. 때로 친부를 찾기 위해 술장사를 하거나 잔치를 여는 등으로 변이되는 것도 그녀의 현실적인 적극성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주인공 남자의 팔자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거역하지 못하게 펼쳐졌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한 사람의 운명적인 행운담이 되었다. 더욱이 문헌에서는 기록자의 설명까지 첨가하여 윤리적으로 용납되지 못하는 일이지만 서생이 복많은 사람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설화와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⁵⁵⁾.

설화 향유자들도 법을 제정자들처럼 사례들을 놓고 판별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법권에서는 이미 일어난 사실에 대한 판결이라면, 설화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부조리한 가능성에서 질서를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그것은 사물이 어떠했나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해야 하는가의 문제 제기이고, 이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생활 속에 담긴 지혜와 공감으로 때에 따라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결론을 도출하기도 한다. 연민이나 보살핌의 情, 위기를 탈출하고자 하는 탈법적인 시도들은 엄

54) <6> 이래서 계가(그 애가) 그걸 면하구 하두 재주가 좋아서 무주춘청 직원을 하고, 지금까지 있는지 몰라요/ <7> 이기구 그 그 사람이 아주 참 판사(서)까장 다 했다. 정승꺼정...../<9> 근게 자식도 똑똑히 두면 말여, 그런 거시기가....., 그 뭐 자식 못들 것 같으면 뺏겨 버리고 말어. 이본에 따라 화자들이 직접적으로 자식의 자질을 평가하기도 한다.

55) 문헌은 <31>에서만 설화에 대한 평가를 첨부하고 있다. ‘外史氏曰 人而無子取有稷贏之負 而翁事則太不近理誠妄矣. 生一因此添丁賴以娛 老亦分外之福 凡人之多男子 是乃上等福人 噫天道無知 伯道無兒 其於命何’

정한 법질서의 경계에서 情狀이라는 명목으로 존재하다 어느 순간 기존의 질서를 와해시킬 수 있는 전복적인 힘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위의 설화들은 보편적인 일반화의 경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물들의 상호작용과 성격 규명 등을 통해 독특한 사람의 한 사례로 규정되고 있다. 즉, 자식이 없을 때에는 양자를 들이고, 간통 등으로 얻은 자식은 결국 밝혀지게 되고, 친부와 아들과의 관계는 무엇보다도 공고히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고, 이것과 다른 결과들은 각 사건의 특수한 인물들의 독특한 상황에서 빚어진 극히 예외적인 사건들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그러나 이런 예외를 밝혀 두는 것은 이념이 갖는 본래의 가치를 긍정하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VI. 결론

‘남의 씨로 아들 낳기’는 가부장제도 아래서 정절을 지켜야하는 여성에게 남편이 간통을 교사함으로써 부부관계의 폭력성을 드러내는 듯하지만, 서사 진행에서나 이야기 구연 상황에서 여성의 성에 대한 문제성을 드러내지 않고 때로 여성들이 즐겨 구연하기까지 한 설화이다. 혈통계승과 여성 정절이라는 가부장제의 굳건한 틀에서 이러한 자료들이 전승된 것은 제도가 만족시킬 수 없는 인간 욕망의 발현이고 문제제기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작품 내 촘촘히 흐르는 가부장의 권력과 가족 지배 방식을 살펴볼 수 있으므로, 가부장제란 다양한 저항의 목소리들을 매우 효과적으로 통합하며 체제를 유지해간 견고한 힘임을 보여주고 있다.

본고에서는 설화를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 사회적인 이념과 틀에 맞추기보다는 작품 속에 나오는 인물 각자의 행위와 욕망, 인물 상호간의 관계성에 초점을 두어 이를 바탕으로 설화의 지향점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이

야기의 향방을 내재적으로 이끈 부부의 관계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임을 살폈고, 운명과 법이라는 배경 속에 남녀의 각기 다른 욕망이 전·후경으로 투사되었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아내에 대해 갖는 남편 권리의 경계 속에 놓여있다고 파악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각 인물들과 그들의 관계, 설화 속에 흐르는 지배 이념과 권력의 모습을 역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문학과 사회가 규범·제도·저항을 상호 재생산하는 과정에 대하여는 앞으로 보다 다양한 자료를 통해 논의를 진행시켜 보고자 한다.

문제 상황에 대한 설화 향유자들의 공감과 해결은 경직된 법과 규범적 틀에 생동감을 불어들이는 결과를 야기하기도 하겠지만, 인물들을 특성화 시킴으로써 그 일반화를 억제하고 있었음을 살필 수 있었다. 설화가 갖는 저항과 실천적 힘이란 단순히 행위를 유발시키는 외적인 영향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설화는 교훈이나 웃음을 통해 향유자들의 가치관을 대대로 서서히 침윤시켜가며 미세한 균열의 실마리 또한 제공한다. 이는 매체와 화자의 비교 분석들을 통해서도 파악될 수 있으나, 한정된 자료와 지면으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자료 대상을 넓혀 확인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1. 자료

- 김기동 편, 『한국문헌설화전집』, 동국대학교 부설 한국문학연구소, 태학사, 1981.
 정명기 편, 『한국야담자료집성』, 계명문화사, 1987.
 『대명률직해』, 한국법제처, 1964, pp.1~558.
 『대전속록:대전후속록:경국대전주해』, 서울대규장각 편, 1997, pp.16~289.
 『수교정례, 율례요람』, 한국법제처, 1970, pp.1~305
 『한국구비문학대계』, 전 82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설화유형분류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pp.1~757.

2. 논저

송시열, 이민상 외, 『빈 방에 달빛 들면: 조선 선비, 아내 잃고 애통한 심사를 적다, 유미림 외 공역, 학교재, 2005, pp.1~288.

Chen Yuanyuan, 『『청구야담』과 『삼언』의 여성인물 비교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5, pp.1~75.

강진옥, 「구전설화 유형군의 존재양상과 의미층위」,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86, pp.1~290.

구연창, 「친권 제도의 재조명」, 『가족법연구』 제 4호, 한국가족법학회, 1990, pp.153~183.

금장태, 『유교사상과 한국사회』,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87, pp.1~319.

김대숙, 「한국구비문학대계 여성제보자 구연설화에 관한 통계적 연구」, 『한국고전연구』 9, 한국고전연구학회, 2003, pp.225~252.

김언순, 「조선시대 여훈서에 나타난 여성의 정체성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5, pp.1~209.

김진영, 「친권자에 대한 법적 고찰」,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2004, pp.1~72.

유점숙, 「부부의사소통 특성과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4, pp.1~121.

이순구, 「조선중기 총부권과 입후의 강화」 『고문서연구』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pp.253~276.

이인경, 「구비설화에 나타난 가계계승과 혈연의식」, 『고전문학연구』 21, 한국고전문학연구회, 2002, pp.5~34.

이재룡 외, 『조선시대의 규범이론과 규범체계』, 한국학술정보, 2006, pp.1~397.

장병인, 「조선시대 성범죄에 대한 국가규제의 변화」, 『역사비평』 No.3, 역사문제연구소, 2001, pp.228~250.

정재민, 「설화에 나타난 한국인의 행복관」, 『한국인의 삶과 구비문학』, 집문당, 2002, pp.93~109.

수전 보르도, 『참을 수 없는 몸의 가벼움』, 박오복(역), 또 하나의 문화, 2003, pp.1~447.

시모어 채트먼, 『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 김경수 역, 민음사, 1995, pp.1~341.

ABSTRACT

A Study on 'the Tales of Absurd Offspring'

Hong, Na-Rae

Adultery is famous theme in folk tales of Chosun Dynasty Period. But adultery in folktale contains not just the interesting story of affair but also the way of patriarchal control over his family. In this research, I examined two types of stories in which husband lets his wife commit adultery to have a son. In this case, adultery is justified as indispensable way to reserve the family lineage, therefore the stories concentrate their interest not on the wife's sexual fidelity, but on the parental authority to the offspring. In both stories, marital communication is the main reason for the son's parental authority and the husband's rights over his wife's body is always protected. The wives' desire for the baby is hidden beneath their husband's rights and responsibility, however the way of the expression of woman's desire is due to patriarchy.

Key Words preservation of lineage, patriarchal rights, adultery, virility, woman

논문투고일 : 2007. 9. 30.

심사완료일 : 2007. 10. 31.

게재확정일 : 2007. 12. 5.